



산업보건 주요뉴스



최근 잇따르는 외벽공사 사망사고, 4월 중 달비계 현장 긴급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하여 긴급 패트를 현장점검, 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데 따른 조치이다.

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외벽 도장·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간 지도·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현장으로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관련한 안전교육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서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 셋째 주부터 앞으로 3주간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 작업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긴급 패트를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최근 잇따르는 외벽공사 사망사고, 4월 중 달비계 현장 긴급점검 추진”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산업안전보건포럼」 개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망하고 해결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산업환경 변화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4월 6일부터 한 달간 5회에 걸쳐 진행되며, 5월 중 전문가들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6일 처음 열리는 포럼에서는 비대면 소비의 비약적 증가에 따라 주요 안전 보건 이슈로 거론되는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세션 1)’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전환에 따른 물류센터의 위험성(세션 2)’등 2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9일에는 ‘플랫폼·돌봄 노동자의 건강보호방안’ 등을 주제로 포럼이 열리며, 22일에는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 안전한 원격근무’, 28일에는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29일에는 ‘로봇 사용 환경의 위험성’ 등을 주제로 개최된다.

*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코로나 이후 나의 일터는 어떻게 바뀔까?”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따뜻한 봄, 밀폐공간이 치명적 계절이 될 수도

-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분석 결과, 봄철 가장 많이 발생
- 고용노동부, 6월까지 질식재해 취약사업장 집중 예방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여름철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따뜻한 봄, 밀폐공간이 치명적 계절이 될 수도”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수 안전제품을 찾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여 산업현장에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제2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5월 14일)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와 보호구 등으로, 과거에 수상을 받은 제품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관련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상급과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제품에는 상급과 상패를 비롯해 공단 본부(울산)의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거나 7월 개최 예정인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품평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4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수 안전제품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1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실시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업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가 작년보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의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0대 건설사들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각 업체별로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계획을 공유하고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1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실시”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